



차기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성 명	김 동 욱	
소 속	한양대학교 에리카	
직 위	교수	

최근 국가간 문화, 경제, 기술이 모두 공동체로 나아가는 글로벌적 융합시대에 국내의 전기전자재료학회 분야에서도 학계와 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과의 다양한 기술분야의 연구활동들이 Open Innovation 하에 밀접한 Co-Work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간의 산업체에서의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재, 부품, 장비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한 핵심 경제 자산으로 되어가는 이 시대에 소.부.장 분야의 기반기술의 플랫폼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 연구 모델과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2. 미래 에너지와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기술 발전속도는 규모적 측면에서 Quantum Up 시대로 진행될 것이므로, 본 산업분야의 핵심이 되는 소재 재료기술의 지속적 연구개발을 위해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주관의 국가 개발정책적 발굴 수립을 위한 대외 정책 반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학의 전기전자 재료학회분야에서 육성되는 인재들이 학습된 지식자산이 국가산업의 적체적소에 활용 되도록, 전방산업의 변화에 대응되는 연구와 이를 추진하는 기업의 인재 필요조건에 맞는 학계의 연구활동이 진행되도록 산학의 가교 Bridge 역화의 Messenger 교육 Program을 마련하여 최적의 인재 육성과 연구분야 공유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성 명	신훈규	
소 속	포항공과대학교	
직 위	교수/부원장	

최근 팬데믹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내외 학술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우리 학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팬데믹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는 2021년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과 함께 시스템 마련과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계 부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서 우리 학회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2022년은 우리 학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면서 질적으로 향상된 학술활동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학회가 지난 몇 년간 얻은 성과는 회원의 매우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타 학회와는 차별화된 성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된다면, 학회장을 보좌하면서 부회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천적 학술활동 발굴 등 학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022년은 학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창립35주년 기념으로 학술단체로서의 역할, 학술활동의 질적 향상 및 학회행사의 회원 참여 확대 등 다양한 학회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 “전기전자재료”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TEEM이라는 SCOPUS 등재 저널을 보유한 학회입니다. Springer Nature가 지원하는 저널로서 좋은 논문투고 활동과 함께 피인용지수(Impact Factor)를 높이기 위한 우리 학회와 회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기전자재료분야의 대표 저널로서 발전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회원의 노력과 임원들의 열정으로 매우 훌륭한 학회 운영과 학술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학술단체 입니다. 부회장으로서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회원, 평의원 및 임원들과 함께 학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부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기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성 명	김 기 훈	
소 속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직 위	교수	

1. 후보 등록을 하며

처음 이 재신 교수님 및 선배 교수님들의 소개로 전기전자재료학회에 들어왔을 때, 비록 제가 자연대에 서 일하고 있음에도 아울러 많은 선후배 동료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환대해주심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회 활동을 하면서, 전기전자재료학회에서 산학연 각계의 연구자들과 융합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제가 더 큰 도움과 학문에 대한 동기 부여라는 좋은 기회와 기운을 받고 있습니 다. 그간 ICAE등의 학회를 참석하고 작년 1년간 부회장으로서 학회 운영에 참여하면서, 그간 선배 임원 여러분의 학회를 위한 묵묵한 봉사와 겸손함에 또 많은 점을 배웠고, 동시에 더욱더 우리 학회에 대한 애 정이 더 생겼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회 봉사를 할 기회를 더 주시면, 저 또한 열린 마음으로 그간 전자재료학회에서 받은 보은을 갚는다 여기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2. 학회 운영 철학 및 방안

다음과 같은 점에 제가 좀더 학회를 위해 기여를 해보겠습니다.

■ 열린 학회로서의 신임 회원의 증가를 위한 노력

현 회장단 및 차기 회장단을 보좌하여, 우리 학회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전자재료를 활용하여 연구에 임 하고 계신 자연대 및 기초 영역 산학연 연구자들을 우리학회에 가입하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하겠습니다.

■ 학술 및 기술 활동 증가와 국내외 교류

다년간 기초 및 응용 재료를 위주로 한 학술회의 진행 경험을 살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초 및 응용 연 구 주제 발굴을 통한 학회원들의 학술 활동 증대 및 활발한 국내외 교류에 기여하겠습니다. 꾸준히 신임 연구자들이 본 학회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실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 최첨단 장비 활용 및 전문가 세미나 활성화

현 기초과학 공동기원장의 근무 경험을 살려, 학회원들이 필요한 신규 첨단 장비의 소개 및 전문가 세 미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미루어진 전자 현미경 관련 산학연 공개 기술 강좌를 학술 분과와 협업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중소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협력 체계 기여

중소 기업 운영 및 중소기업 과제 협력 경험을 살려, 산학연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필요 주제 발굴 및 산학연 협력 과제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금년도에 시작한 차세대 지능형 반 도체 사업단과 학회의 협력 시너지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